

우리는 그렇게 “public” 인간이 되어간다

최정선*

2021년 3월은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시기였다. 새 직장에서 새 일자리를 시작한 우리는 의례를 거치지 않고 아주 조용히 적응하기 시작했다. 비대면 수업을 하고 학과 회의도 줌으로 진행하고 학교의 모든 행사가 취소된 상황이라, 월회수목금 혼밥과 혼공의 시기였다. E 인간인 다른 선생님은 답답해했지만, I 인간인 나는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의 관심 밖에서 나 홀로 즐거운 직장생활을 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러던 어느 날 인문대학 신입교원 모임에 초대됐고 새로운 역할에 적응 중인 다른 선생님들을 알게 되었다. 만남은 즐거웠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했고 서로의 공부를 존중했다. 그러다가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공부모임이 시작되었다. 한 달에 한 번 연구분야 소개의 자리에서, 모두의 관심을 아우르는 “기후변화”라는 특정 주제가 정해졌고 우리의 공부모임은 “오버스터디”(Over-Study)이란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이 이름은 인류가 모두 나무의 뿌리와 가지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리처드 파워스의 소설 『오버스토리』에서 가져왔다. 존 란체스터의 『더 월』, 벨러드의 『물에 잠긴 세계』, 매큐언의 『솔라』를 읽으며 종말의 세계를 엿보았고, 클라이브 해밀턴의 『인류세』,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티모시 모턴의 『하이퍼오브젝트』 (Hyperobjects), 아미타브 고쉬의 『대혼란의 시대』, 부뤼노 라투르의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룩 니슨의 『느린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학습

*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하고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을 고민하였다. 여전히 이 공부 모임의 목적은 “private” 했고 각자의 연구 분야에서 기후변화 주제를 적용한 연구를 해보고 업적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겨울이 가고 새봄을 맞이한 우리는, 착각일 수 있지만, “인문학의 위기”, 혹은 “인문대학의 위기”를 헤쳐 가는 대열에 합류해야 함을 체감하고 있다. 즉, 내 개인의 연구가 내가 속한 조직의 미래를 살피는 “구원의 서사”로 전환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다른 교수님들의 걱려를 내면화하고, 나오미 클라인이 그의 책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에서 독자에게 최면 걸듯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불타버릴 수 있는” 인문학의 미래를 위해 “구원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즉, 공동연구와 연구소 중점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비를 받아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무 심으러 몽골에도 가고, 기후변화 관련 교과목을 개발하거나 기후인문학 특수 대학원 설립이라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양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90년대 초 학생회관 앞에 걸린 플래카드의 문구를 떠올려본다. “인문학이 밥 먹여주냐!” 그럼 그렇지. 늘 누군가의 밥을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범주에 인문대학 소속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었다. 인문학은 사실 늘 위기였는지도 모르겠다. 혹은 인문학의 정의는 인간의 위기를 성찰하는 학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광재식 선생님이 그의 책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인문학의 위기가 아니라 인문학 연구가의 존재 의미를 고민해야 하는 게 맞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public” 연구자로서 인문학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기후과학자 김백민의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와 환경경제학자 매슈 E. 칸의 책 『우리는 기후 변화에도 적응할 것이다』의 책 제목처럼 앞으로 우리는 인문학의 미래를 위한 답을 찾아야 하고, 찾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public” 인간이 되고 있다.